



권탄준 교수의 경전읽기

화엄경 입법계품 <8>

부처님 경계와 보현행

보현보살은 사자빈신삼매에 대해서 열 가지의 내용으로 설명을 하고 나서 그 경계를 다음과 같은 계층으로 읊는다.

하나하나 털구멍 속에 / 모든 세계 티끌의 부처님을 / 보살대중이 둘러 모시었는데 / 보현의 행을 말씀하시네 // 부처님은 한 국토에 앉아서 / 시방세계에 가득하시네 / 한량없는 보살구름이 / 그 곳으로 다 모여들고 // 역만 세계의 티끌수 같은 / 보살의 공덕바다가 / 모인 속에서 일어나 / 시방세계에 가득하였고 // 모두 보현의 행에 머물러 / 법계바다에 노닐면서 / 모든 세계를 두루 나타내어 / 평등하게 부처님 회상으로 들어와서 // 모든 세계에 편안히 앉아 / 모든 법문을 들으면서 / 날날 국토에서 / 역 겁 동안 행을 떠나니 // 보살들의 닦는 행은 / 두루 밝은 법바다의 행으로 / 큰 서원바다에 들어가 / 부처의 경계에 머무르면서 // 보현의 행을 잘 통달하고 / 부처님의 법을 내어 / 부처님의 공덕바다를 구축하고 / 신통한 일을 널리 나타내며 // 몸구름(身雲)이 티끌수 같아 / 모든 세계에 가득하게 / 감로의 법을 널리 비내려 / 대중들을 부처의 도에 머물게 하네

여기에서 특히 주목하게 되는 점은 사자빈신삼매의 부처님 경계 내용을 보현행이라고 하는 보살의 삶으로써 나타내고 있다는 점이다. 일체의 세계에 무량한 부처님이 계시고, 그 부처님들은 보살들에게 보현행을 말씀하신다. 보살들은 보현행을 배우고 실천하면서

수행하고 있는 세계다. 진실하고 아름다운 생명활동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세계인 것이다.

경계라고 하는 것은 행에 의해 성립하는 세계고, 행은 경계에서 나타나는 작용이다. 이러한 면에서 본다면 인간의 행위(業)와 경계(환경)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그러므로 제불의 국토라고 해도 다만 공간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보살의 수행을 통해서 그것을 설하게 되는 것이다. 보살의 수행을 설하지 않는 제불의 세계는 있을 수가 없다.

부처님의 경계 혹은 범부중생의 경계라고 하는 경계가 미리 설정되어 있어서 마음이 그 사이로, 내지 보살이 온집한 까닭으로 큰 장엄의 세계라고 해서 끊임없이 여러 경계를 만들어서 걸림없이 오고가는 것이다.

<화엄경> 세계성취품에서 "중생이 머무

보살도 수행은 '상생'에 동참하는 일

사사무애에 입각한 인간생존 방식

부처의 경계에 머무르면서 부처님의 무량한 공덕을 갖춘다. 이와같이 모든 세계에서 항상 감로법을 널리 설해서 대중들을 부처의 도에 머무르게 하는 것이 부처님 경계라고 설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부처님의 경계라고 하는 것이 지혜와 자비로 충만한 보현행의 세계라고 하는 점을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부처님의 세계는 단순한 공간세계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불보살이 지혜와 자비로써 중생을 교화하면서

는 까닭으로 더러운 겁으로 바뀌고, 보리심을 발한 중생이 머무르면 청정한 세계집으로 바뀌고, 내지 보살이 온집한 까닭으로 큰 장엄의 세계집으로 바뀐다"고 한 것은 바로 이러한 내용을 설한 것이다.

사자빈신삼매에 의해 드러난 세계는 부처님의 깨달음 눈으로 본 세계의 진실한 존재 모습이다. 그 세계는 한량없이 차별된 이 세계가 그대로 평등한 하나의 세계며, 만물이 무한의 상관관계로써 끊임없이 아름다운 상

생의 생명세계를 펼치는 영원의 세계이다. 이러한 세계의 실상(實相)을 증득한다는 것은 그 세계의 본질적인 체계에 대한 진실한 눈뜸과 함께, 그러한 존재의 세계의 실상에 부합되는 삶을 펼치는 일이 될 것이다. 보현행은 바로 이러한 일즉일체 일체즉일의 사무애(世無別)의 실상에 입각한 진정한 인간생존 방식이다.

부처님의 세계는 과거 무수한 겁 동안 석존이 수행해 온 보현의 행위에 의해 나타난 진실의 세계인 동시에 그러한 보살행의 장엄의 총체(總體)이다. 그러므로 부처님의 세계를 가늠해온 아름다운 장엄의 광경들도 보현의 행(行)을 살피는 무수한 보살들로써 보여지는 것이다. 그래서 보현의 행원이 아달로 세계의 모든 곳에서 끊임없이 부처님의 세계로 향해 들어가고, 다시 그곳에서 끝없는 세계로 나아가 자비활동 펼치는 장엄의 총체를 나타내는 구체적인 행(行)이 된다. 그러므로 만약 우리들이 스스로 보현의 원(願)을 일으켜서 끊임없이 보살도를 수행해 나가면 그때 그 순간에 우리들은 대우주의 영원한 상생(相生)의 생명활동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다.

<화엄경>에서 부처님의 세계는 보현행원을 닦아 깨끗하게 장엄한 곳이다. 또한 온갖 세계 국토들이 부처님이 계시면서 법륜을 굴리는 곳으로서 보현의 행원이 바로 불타의 행이라 하는 것은 중생이 보살행을 실천함에 있어 하나의 이상을 제시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괴롭고 어두운 현실세계에서 모든 중생들이 보현행을 실천함으로써 부처님 세계를 성취하려고 하는 이상을 가질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동국대 불교대학원 교수>



생명(生命)이란 무엇인가?

오늘날 의학이 발달하여 인간의 가장 외적인 부분에서부터 가장 내적인 부분까지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연구 자료가 쌓여 있지만 정작 '생명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 의학이나 생물 분야에서는 침묵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 이유중 하나가 오늘날 의학이 너무 세분화되어 자신의 영역에서는 전문이지만 인간 전체의 문제인 '생명'에 관해 자신있게 말할 처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의학에서는 대체적으로 다 음과 같이 전문분야별로 나누어서 생명을 정의하고 있다. 첫째는 '생리적 정의'. 생명이 가지고 있는 특징적 생리작용, 즉 호흡, 성장, 번식 등을 나열하고 이러한 생리작용 지닌 것을 생명이라고 정의한다. 둘째는 '대사적 정

설계도가 아니기 때문이다.

'생명이란 무엇인가?' 문제는 세계관이 일원론이나 이원론이나, 기계론이나 유기론이냐에 따라, 혹은 생명을 물질의 한 형태로 볼 것이냐 아니면 물질이 생명의 한 형태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수많은 갈등을 빚어왔다.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생명의 정의가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문제가 제기된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생명의 정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에 인간에 있어 '생명은 언제 시작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하여 서로 다른 대답을 할 것이다. A라는 사람은 '생명은 임신과 더불어 시작한다'고 말할 것이고, B라는 사람은 '생명은 산모가 태동을 느끼는 순간부터 생명 시작한다'고, C라는 사람은

과학적 정의는 현상에 대한 설명일 뿐

사회적 기준 없어 낙태·생명 경시 만연

'의'인데 신진대사를 끊임없이 수행하고 있는 것을 생명이라고 정의한다. 셋째 '유전적 정의'. 자기와 똑 닮은 또 하나의 개체를 만들 수 있는 생식작용 가진 것을 생명이라고 한다. 넷째, '생화학적 정의'로 유전적 정보를 함축하고 있는 DNA와 화학적 반응을 조절하는 효소들을 함유하는 것을 말한다. 다섯째, '열역학적 정의'인데 자유에너지의 출입이 가능한 하나의 열린 체계를 가진 것을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정의들은 생명 그 자체에 대한 정의라기보다 생명의 현상에 대한 설명이다.

이와 같이 생명에 대한 정의가 어렵게 되자 혹자는 인간의 유전정보가 완전히 해독되면 생명의 비밀이 완전히 해명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 또한 믿어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DNA는 물질의 설계도이지 생명 그 자체의

'생명은 태아의 생존 능력이 갖추어질 때부터 시작한다'고 대답할 것이다. D라는 사람은 '생명은 출생 때부터 시작한다'고 대답할 것이며, E라는 사람은 '생명은 사회적 상호 작용이 있을 때부터 시작한다' 대답할 것이다. 이와 같이 생명에 대한 사회적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낙태 수술이 만연하고, 생명 경시 풍조가 무성해져서 퍼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불교에서는 생명을 어떻게 정의하는가. 몸과 마음이 합쳐진 것이 생명이며, 몸과 마음이 분리되는 것이 죽음이라고 본다. 그러므로 마음(一心)은 생명의 본질이며, 생명체에서 볼 수 있는 생리, 대사, 생화학적, 에너지, 그리고 열역학적 현상 등은 모두 몸과 마음의 합침에 의해서 생기는 부수 현상일 뿐이다. ■충남대 의대 산부인과학



그림·문병성



보조지들의 '간화결의론' ③

화엄의 법계연기설

<간화결의론>에서 지들은 화엄교학을 비판한다. 그의 화엄교학에 대한 비판방식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화엄의 법계연기설(法界緣起說)을 분명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주지하다시피 불교의 대표적인 가르침은 연기론이다. 초기불교의 12연기설 이후 불교의 연기설은 계속적으로 그 관점이 바뀌어 왔다. 이를테면 유식(唯識) 불교에서는 아뢰야식 연기를 주장하고, 여래장(如來藏)에서는 여래장 연기를 말한다. 마찬가지로 화엄(華嚴)에서는 법계연기설을 강조한다. 법계연기는 법계와 연기가 결합된 말로서, 화엄교학의 핵심 내용이다.

법계연기에서 법계란 법의 세계, 영역을 의미하지만 화에 따라서 다른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결코 쉬운 개념은 아니다. 사실 법이란 낱말은 불교의 용어 가운데 가장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가르침으로서 진리, 혹은 도덕적인 삶의 질서를

의미하기도 하고, 모든 존재의 요소를 가리킬 때도 있으며, 변화하는 사물의 현상을 말하기도 한다. 또한 존재뿐만 아니라 인식의 주체와 대상을 함축하는 매우 다양한 의미를 가진다. 그렇지만 적어도 유식불교의 영향을 받은 초기 화엄교학에서 법계연기란

所執性)으로 파악한다.

다음으로는 번뇌와 업으로부터 깨끗하고, 물들지 않는 영역을 의미한다. 이것을 아비담마 불교에서는 조건화된 행위(有爲)에 상대되는 인위적인 작위가 결여된 상태(無爲)로 분류하였다. 화엄교학에서는 번뇌에 물든 연기(染緣起)에 대해서 물들지 않는 의미에서 이것을 깨끗한 연기(淨緣起)라고 했다. 따라서 이것은 출세간적인 의미를 가지며, 거룩한 성인의 길이라고 인식되어 온 측면을 가리킨다.

마지막으로 그것은 자체의 연기를 의미한다. 물들거나, 혹은 깨끗하거나 하는 어

품은 될 수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관(中觀) 유식(唯識)사상에 기초한 화엄에서 말하는 법계연기는 더러움과 깨끗함을 모두 포섭한다. 이런 입장에서 선다면 세간과 출세간, 유위와 무위, 범부와 성인의 이원론적인 차별은 무너진다. 세간과 출세간, 생사와 열반은 동일한 삶의 진실한 모습이며, 모두 법계의 연기인 것이다. 양자를 모두 포섭한 입장이야말로 대승불교의 사상적인 근거점이 된다. 만약 어느 한쪽만을 강조한다면, 그래서 이 세계에서, '버리고 떠나기'를 추구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소승불교인 것이다. 양자를 모두 포섭한 큰마음(一心)에 대한 믿음과 실천이 대승의 정신이다.

이런 점에서 화엄 교학은 모든 연기와 깨끗한 연기를 모두 포섭하면서도 분명하게 구별되는 법계연기라는 용어를 즐겨 사용한다. 화엄에서 강조하는 대승보살의 독자적인 법계연기는 사물이 가지는 그 자체의 일어남(性起)을 드러내며, 삶의 진실함을 담지하고 있으며, 참으로 큰(大) 연기라고 말한다. 이런 의미에서 화엄에서는 법계연기라는 말과 함께 진성연기(眞性緣起)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한다.

■인경(禪)상담연구원장

(02-733-5311, www.seontherapy.org)

대림구조 초월한 큰 마음에 대한 믿음·실천

용어는 다음과 같은 세 종류가 있다고 본다.

먼저 번뇌에 의해서 물들어진 세계나 그 심리적 영역이다. 이것은 초기불교에서 보면 번뇌를 발생시키는 무명과 갈애에 의한 12연기를 말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을 중관사상을 확립한 용수는 언어에 의해서 지배되는 세속적인 관습(世俗論)이라고 했고, 유식사상을 제공하는 <해심밀경>에서는 한 쪽에 치우친 집착된 마음 현상(遍計

번 가치로부터 벗어난, 연기하는 그 자체이다. 깨끗한 물도 물이고, 더러운 물도 역시 물이라는 입장에서 근본적으로 서로 다르지 않다는 관점이다. 이것이 화엄에서 말하는 진정한 의미의 법계연기이다. 더러운 연기도 연기이며 깨끗한 연기도 역시 연기로, 진실한 사물의 본질을 드러낸다는 입장이다. 더럽고, 깨끗함은 다만 인연의 결과이며, 그 자체 만으로 본래적인 성

불자님, 이제 병고에서 벗어납시다!!

오랜세월 불보살님 가피를 입은 큰스님께서 세상에 한분 밖에 없는 초능력 힘을 지닌 불보살님으로 명명 받은 분께서, 병원에서 치유되지 않는 원인모른 불치병으로 고생하고 계시는 불자님이 계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병명

수증증, 와사풍, 중풍(발병 6개월이내) 간질, 만성위염, 오장육부가 불편, 만성두통, 천식, 천도폐렴, 관절염, 만성피부질환, 정신질환 설사 및 어려운 병 등 (내방환영합니다)

※ 작명, 오행철학(五行哲學), 인생의 길 안내와 상담도 해드립니다

대구 팔공산 깃바위 뒷길 시연정사 053)853-2211, 011-808-8880

3천배 철야정진 차량운행 안내

- ◆ 일시: 매월 마지막주 토요일 저녁7시~일요일 아침7시
- ◆ 호응에 맞춰 절하는 법 교육(저녁7시~9시) 숨차지 않고 험덕거리지 않으며 맥박이 빨라지지 않고 몸살나고 힘들고 졸리고 다리, 무릎, 허리가 아프지 않게 하려면 절하는 동작에 호흡호 호흡법을 대입하는 교육을 2시간 받으시면 누구나 완벽하게 절할 수 있습니다.
- ◆ 3천배정진: 500만배 성만한 스님과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죽비소리에 맞춰 300배씩 10회로 매 시간 시작전에 마음다스리는 소참 법문을 듣고 끝내며 부처님 감사 수행으로 마음 밝히고 축원 기도를 올리며 간절히 큰 마음으로 소원을 성취 하며 인생에 걸림돌이 되는 큰 업장이 녹아 내림을 체험한다.
- ◆ 차량운행: 2002년 12월 31일 화요일 조계사앞 출발 → 지하철 2호선 삼성역 7층출구 한국전력 앞(5시) 경유하여 범왕정사 도착
- ◆ 차량예약문의: 양현숙 011)222-3329

백만불자 10배 만일절사 수행 중심 도량 법왕정사

경기도 양평군 단원면 석산리 소리산 참선캠프 전화 031) 771-7745 · 7038 · 6736 (Fax 겸용)
○ 오시는길: 양평 → 용문터널 → 단원 → 대명비발리파크 스키장 입구 청평방향 7Km
○ 버스(서울 상봉터미널) → 모곡역 → 모곡중점차차 전화 요

승복 법복 안내

인연을 소중히 생각하며 항상 처음이라는 자세로 변함없이 계종 생산·연구에 임하는 저희 업체에서는 부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정성껏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 | | |
|----------------------|---|
| 1. 모직혼방
물세탁 가능 | 적삼, 바지: ₩140,000
동방, 바지: ₩160,000
두루막: ₩140,000 |
| 2. 면 100%
조각무늬 무늬 | 적삼, 바지: ₩130,000
동방, 바지: ₩150,000
두루막: ₩130,000 |
| 3. 누비
(면술 100%) | 적삼, 바지: ₩230,000
동방, 바지: ₩240,000
두루막: ₩200,000 |
| 4. 누비(혼방) | 적삼, 바지: ₩170,000
동방, 바지: ₩190,000
두루막: ₩170,000 |
| 5. 법복(회색, 밤색) | 조끼, 바지: ₩60,000 ~ ₩65,000 |
| 6. 장삼(모직) | ₩200,000 ~ ₩250,000 |
| 7. 승복(골덴) | 적삼, 바지, 조끼 ₩200,000
동방, 바지 ₩190,000 |

◆ 유사제품과 비교해 보십시오 ◆
※ 전화로도 기사 주문 가능합니다 ※
● 찾아오시는대: 대구 지아질 중앙로역 3번 출구 앞
30년 전통의 승복 전문 업체 원방각
아름섬유
전시장: 053)256-0108
공 장: 053)425-4449
휴대폰: 016-597-4449
011-809-2398
주소: 대구광역시 중구 포정동 6-11 (지역대리점도입)

당뇨 다운 밸런스

- 당뇨, 만성피로 등 각종 성인병 개선에 효과 '놀라워' -

그것은 다운 밸런스에 사람의 체질을 약화시키는 체질로 바꾸어 주는 힘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체질을 바꾸기 전에는 당뇨병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인슐린 양이 부족하여 높게 상승된 혈당치가 당뇨병의 당대사를 개선시켜주는 강력한 작용으로 원치하게 떨어지다 물질 영양대사 기능을 활성화시켜 당뇨병으로 인한 합병증을 개선 예방할 뿐만 아니라 당뇨로 인해 결핍된 영양소를 체내에 균형있게 공급하여 무너진 영양밸런스를 조정해 줍니다.

▶ 당뇨 밸런스의 당뇨에 대한 효과 20일~30일만 드셔도 효과가 나타나며 1-2개월만 드시면 병원약(신약)을 먹지 않아도 됩니다.



당뇨병 외 기타질환에 대한 당뇨 밸런스의 효과
- 위계양, 비만증, 무릎, 체력증강
- 갱년기 장애 등
- 강기에 걸리지 않는 체질로 개선
- 자율신경질조율
- 피로할 없애고 뇌를 맑게 해줌
- 정력증강, 술, 담배해독
- 피부를 아름답게 부드럽게 해줌
- 암, 관절염, 고혈압
최원케미칼라이프 Co
(주)반도체연구소사업부
주문 및 상담 02) 598-9832
무료 전화 080-598-9832